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연호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장

나를 세운 부처님 말씀…"준 것 남고, 가진 것 없어진다"

제천=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김연호 회장은… 1952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했다. 국립경상대학교 수의대를 졸업해 진주동물병원을 설립하고 운영중이다. '제천 우리는 선우'를 창립했으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제천지부장, 제천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제천 옥소종합예술제 창립 ·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수필집 <뭐하고 살았나> 달라이 라마 대담집 <기다림의 지혜가 있는 땅> 사진집 <합장 인생> 등 다수가 있다. 국민훈장 석류장, 제천시문화상, 불이상, 대원상, 충북도민대상, 대불련동문대상, 자산문화예술인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제천 진주동물병원장, 우리는선우 제천 지회장이다.

불살생(不殺生),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다. 죽음은 사라짐이다. 몸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먼지가 되고, 고인에 대한 추억과 기억은 세월 속에 희미해지며 결국은 잊혀진다. 기억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흔적. 김연호 제천 우리는선우 회장은 과거 스님들의 수행과 깨달음의 흔적을 되살려 오늘 새롭게 가르침을 소환하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불교 성보 유산의 현시(顯示)'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연호 회장은 스님들의 흔적이 담긴 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불살생'이라 했다.

"성보(聖寶)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님들의 수행과 가르침이 담긴 살아 있는 기록입니다. 스님들의 유묵과 서화는 단순한 글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들이 남긴 '마지막 설법'입니다. 선지식들의 사상과 신념이 글씨 한 획마다 녹아 있죠. 저는 이것을 단순히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있는 가르침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통도사 주지실에서 김연호 회장은 유물 196종 331점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했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담긴 불교문화유산이었다.

평생 모은 향토문화재와 불교 성보유산을 회향하는 김연호 회장을 만나기 위해 3월 10일 제천으로 향했다.

김연호 회장은 제천에 자리한 동물병원으로 안내했다. 진료실, 수술실, 처치실 등 일반적인 병원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이곳은 첫인상부터 남달랐다.

입구에 들어서자 전각과 현판, 문화재와 그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벽을 채운 예술 작품과 소중한 인연들과 주고받은 편지, 향토문화유산까지 마치 지역의 작은 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어린 시절부터 문화재의 가치를 깨달은 그는 7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평생에 걸쳐 모은 보물들을 간직해왔다. 비록 많은 유물을 기증해 이제는 그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그 흔적과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하며 기증의 계기를 묻자, 김연호 회장은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한마디를 건넸다.

"준 것은 남고, 가진 것은 없어지더라."

기증한 유물들은 이제 개인의 소유를 넘어, 불법의 깨달음을 전하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유년 시절 불교와 첫 만남

김연호 회장과 불교의 첫 인연은 그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경남 하동군 진교면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다랑논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집안은 불교와 특별한 연이 없는 평범한 농가였다. 그러던 가운데 청소년 시기에 큰 병을 앓으며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10대 후반, 심한 위장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그는 요양이 필요했다. 그때 다솔사에서 머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사찰에서 맞이한 새벽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었다. 도량석 목탁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는 고된 치료로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고, 다솔사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요양의 의미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사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며 신행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시절은, 이후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다솔사에서 생활은 단순한 요양을 넘어 불교적 삶의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김연호 선생은 이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세 명의 스승을 만났다.

첫 번째 스승은 효당 최범술 스님이었다. 독립운동가이자 학자로서 불교뿐만 아니라 차(茶) 문화의 선구자로도 잘 알려진 효당 스님은 김연호 회장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두 번째 스승은 효당 스님의 은사였던 환경 노스님이었다. 환경 스님은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붓과 먹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 선서화의 전통을 이어온 분이다. 김연호 선생은 스님의 모습을 통해 예술과 수행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서예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스승은 불교사학자로 명성을 떨친 김상현 동국대 교수다. 김상현 교수는 효당 스님의 속가 제자로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탐구한 인물이었다. 김연호 회장은 그에게서 불교를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 이해하는 태도를 배웠다.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육촌 형과의 경험이었다. 마을에는 오래된 불경과 불상,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 문화유산이 유출될 위기에 처하자 그의 육촌 형은 마을에 있던 소중한 문화재를 몰래 숨겼다.

"육촌 형은 아무도 모르게 산속 깊숙한 곳에 불경과 작은 불상을 묻어두었어요. 그걸 몰래 꺼내보며 문화유산이 왜 중요한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어린 나이지만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죠. 그 기억이 평생 남아 있었습니다."

불심으로 빛나는 청춘의 길

경상대 수의학과에 입학한 김연호 회장에게 불교와의 인연이 다시 찾아왔다. 새내기의 설렘 속에서 학창 시절 인연을 맺었던 김상현 교수를 다시 만났다. 당시 김상현 교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경남지부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었고, 그의 열정은 젊은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권유로 대불련에 가입한 김연호 선생은 주말마다 진주 연화사 법회에 참석하며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매주 열리는 법회와 교양강좌, 간이수련회 등을 통해 젊은 시절 인생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김연호 회장은 제천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학 졸업 후 잠시 머물 계획으로 향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불교와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대불련 회원의 말이 계기가 됐다.

10대 시절 수술 후 찾은 다솔사서
인생 스승 3인 만나며 불교와 인연
대불련 활동 후 제천에서 불교운동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 창립 견인

사라질 문화유산 지키려 수집 활동
"스스로 문화재 되라" 충고에 회향
국립청주博 등에 문화유산 기증해
최근 통도사 성보博에 '통큰 기부'도

"제천에도 불교청년회가 생겼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1976년 8월 30일, 그는 한산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해산 위기에 놓인 불교청년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남아 있던 회원 다섯 명이 마지막 법회를 마치고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들과 즉시 청년회 재건을 논의했다. 작은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낳으며, 그 순간부터 제천에서의 불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주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제천의 불교청년회를 살리겠다고 나서자,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불과 몇 주 만에 청년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새로운 회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김연호 회장은 법회의 틀을 다지고, 신행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염불 기도와 다도 강좌를 열었다. 제천에서 생소했던 다도 강좌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법당은 열정적인 젊은 불자들로 가득 찼다.

이후 그는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고 불교 기초강좌를 개설했다. 단순한 법회 운영을 넘어 청년 불자들이 불교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 부처님오신날에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연등행렬을 이루며 시내를 가득 메웠고,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지역 청년불교운동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김연호 회장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 1991년 중반 전국의 재가불자들이 '우리는 선우'를 창립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남지심, 박광서, 성태용 등 진보적 불교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불교의 현실을 개혁하고, 자비 실천을 강조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뜻을 함께하며 6개월 뒤 제천에서도 '우리는 선우' 지회를 창립했다.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이 모임은 사찰의 재정 투명화, 탈북민 장학금 지원, 인도와 네팔 불교학교 후원, 군법당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는 이후 30년 넘게 이어지며 제천불교계의 중심축이 됐다. 매년 4대 보살 백일기도를 봉행하며 신행활동을 이어갔고, 수백 회의 열린 강좌를 통해 제천 시민들의 의식 향상에도 기여했다.

불심으로 피워낸 문화예술의 향훈

청년 시절이던 1970년대, 그는 다솔사에서의 수행 생활을 통해 불교와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워나갔다. 이후 수의사로서 동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한편, 불법 홍포와 문화유산 수집에 몰두했다. 하루 수입의 10%를 불법 홍포에 사용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거의 문화유산과 서화를 수집하는 데 쓰였다.

그는 점점 지역에서 손꼽히는 수집가로 자리 잡았으나, 어느 순간 수집의 의미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김상현 교수로부터 "문화유산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화유산이 되라"는 충고를 들으며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문화재는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그 가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에게 자리 잡았다. 결국, 그는 25년간 정성껏 모아온 문화유산들을 사회에 회향하기로 결심했다.

1990년,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품을 맡기며 문화유산 기부를 시작했다. 이후 2001년에는 청주박물관과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2차 기증을 진행했다. 특히 2001년 청주박물관에서 열린 2차 기증식에서 그는 기자들 앞에서 "준 것은 남고 가진 것은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 출처를 묻자,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답했다. 이 말은 이후 여러 신문에 크게 실리며, 불교의 나눔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2015년에는 제천역사박물관에도 문화유산을 기증했다. 통도사 기증유물 외에 1250점이 넘는 유물을 기증한 그는 단순한 기부자로 머무르지 않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 불교에서 시작된 그의 문화유산 사랑은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존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예총 제천지부장을 맡아 활동하며, 2015년 '옥소종합예술제'를 창설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불자로서, 그리고 문화예술인으로서 그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수행의 한 과정임을 몸소 실천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19년 제천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불교적 신념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융합하며, 그는 회향의 길을 걸었다.

김연호 회장은 문화유산 기증이 단순한 소장품의 이동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가치를 전하는 불자의 실천덕목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회향은 문화유산을 넘어, 불교의 또 다른 전법(傳法)이자, 법보(法寶)를 되살리는 여정이다.

김연호 회장은 인터뷰 내내 성보유산 속에 담긴 불법(佛法)이 단절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이어지려면, 그것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가르침으로 '현현(顯現)'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야말로 성보가 오늘날에도 다시 깨어나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지난 3월 4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실에서 열린 성보문화유산 기증식에서 주지 현덕 스님이 김연호 회장에게 기증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1977년 5월 8일 제천불교학생회 창립기념법회. 사그라들던 제천 지역 청년불교에 다시 불길을 당겼다. 이를 이끈 것이 김연호 회장이다.



2003년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린 '김연호 기증문화재' 전시회 현수막 앞에서 김연호 회장이 부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